

# 퓨전 재즈 공연·양림살롱...문화 감성 충전



내일 광주·전남 문화행사 다채  
‘열린 소극장’ 소외층 객석 제공  
대담미술관 타일 일기 체험

화사한 봄기운이 가득한 4월의 마지막 주말, 문화로 감성을 충전하면 어떨까. 25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광주지역 주요 문화시설 등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4월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프로그램으로 오후 7시 30분 ‘양리머스’를 초청해 팝&재즈 음악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관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무스재즈와 팝음악 연주곡인 ‘바람의 노래’, ‘그것만이 내 세상’, ‘Blue Force’ 등의 양리머스 정규앨범 1집과 대중가요를 접목한 무대를 준비했다. ‘양리머스’는 지난 2011년 양림동에서 결성돼 올해 8년차인 퓨전재즈&팝 밴드로 스무스재즈, 가요 등 대중이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은 객석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 열린 ‘1930양림살롱’ 공연 모습.

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며 관람객 전원에게 공연 후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62-670-7943. 담양에 소재하는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27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끄적끄적 내맘대로 그림일기’를 진행한다. ‘끄적끄적 내맘대로 그림일기’는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바쁜 현대인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자의 고민을 문화예술로 힐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거리를 주고 받으며 타일에 그림일기를 그려내는 시간으로 전시 해설프로그램, 체험프로

그램, 각종 부대행사(사진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이후 제작된 타일 작품은 올 연말 전시회를 열어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담미술관 전시실, 체험관, 야외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1-381-0082. 광주의 문화 명소가 결집해 있는 양림동에서는 25일 오후 첫 ‘1930양림살롱’이 시작한다. ‘양림살롱’에서는 1930년대 모던 광주를 주제로 한 공연, 전시, 문학, 마켓, 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음악공연인 ‘살롱콘서트’, 양림동을 야간에 둘러볼 수 있는 ‘양림달빛투어’, 개화기 한복과 양장을 대여할 수 있는 ‘모던 의상대여’ 등의 다

양한 이벤트가 열린 예정이다. 광주시 광산구는 예술나눔 콘서트 ‘보이스&하모니’를 준비했다. 25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이날 공연에는 국악이카펠라그룹 ‘공(共)’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하모니테라피’가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매화타령’, ‘속대머리’, ‘산타령’, ‘개고리타령’, ‘풍구소리’, ‘뱃노래’, ‘진도아리랑’, ‘제주의 왕자’, ‘철새는 날아가고’, ‘아름다운 나라’, ‘사랑아’ 등이다. 무료관람. 문의 062-960-8833. 광주 충장아트홀도 연극 ‘나의 PS파트너’를 29일까지 무대에 올린다. 25일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한 관객에 한해 4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박성천·전은재기자 ej6621@

## 광주문화읽기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팀장

살 속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시민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개인별 인생의 풍요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이 건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사회·경제생활에서 은퇴하는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시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더불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대상층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증폭과 활동보장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중년은 인간의 인생에서 장년과 노년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중년을 40~50

다. 이것이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의 프롤로그이다. 매년 참여자는 10명에서 15명내외를 기준으로 모집하고 운영하지만 각자의 꿈을 다시 회상하고 새로운 일상에로의 도전을 시작하는 각각의 ‘경자씨’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4년 경자씨와 재봉틀 I 을 시작으로 2015년 경자씨와 재봉틀 II -엄마를 부탁해, 2016년 경자씨와 재봉틀 III -꿈을 찾아 나서는 여행, 2017년 경자씨와 재봉틀 IV -정춘련예이를 운영했다. 경자씨들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매년 부채를 설정하여 화차별 특성을 담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을

##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대 안팎의 나이대로 간주한다. 하지만 인간의 네 번째 과정인 중년은 40세~64세이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호모인드레드 시대(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50+세대(만40세~69세, 50플러스세대)라고도 한다. 현재 주로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이때 여성은 생물학적 폐경을 겪는다. 남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의 현상중 하나에 대한 긍정적 용어로 ‘완경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노화를 재앙처럼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끝이나 종말로 보는 것이 아닌 완성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도약기로 보고자 하는 긍정적 시각에서 기인한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인 ‘경자씨와 재봉틀’과 ‘병태씨와 고래사냥’ 프로그램을 2014년 기획하여 진행 중에 있다. 여성은 일생 중 ‘엄마’에서 ‘할머니’로 가장 많이 불리운다. 자기 이를 석자 불리워지는 것이 어느새 어색해져버린 나이가 된 다. 그렇지만 아직 소녀시절 꿈꿔왔던 내 꿈을 다시 꿀 기회가 된다면 무엇 이든지 해보고 싶은 나이 중년이 되었다. 중년이 된 소녀가 자기 이를 석자 ‘경자씨’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보급·확산을 위한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첫 출발이었다. 이외에도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2015년 파일럿프로그램인 ‘병태씨와 고래사냥’은 퇴직, 은퇴를 통해 사회와의 단절을 겪게 되는 아버지들의 아이 찾기 프로그램을 시작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분류되는 우리들의 아버지는 먹고사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오느라 은퇴를 준비하지 못했고, 가족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병태씨와 고래사냥’은 은퇴자가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신의 꿈을 바탕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 각 세대별 전환점들이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때이다. 광주시민을 위해 지역 내 마을 단위로 누구나 향유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한 사람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원불교 대각개교절 의미 살려 더불어 사는 세상 염원”

장덕훈 광주전남교구장 인터뷰  
“남북회담 평화의 길 나가길”  
법인성사 100주년 준비 박차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大覺開教節·28일)을 앞두고 장덕훈(사진) 광주전남교구장은 “작금의 시대는 정신이 쇠약해 물질의 노예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라며 “마음의 힘을 길러 어지러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은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이 오랜 구도 끝에 깨달음을 얻은 날로, 원불교에서는 개교(開教)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은 원불교 교도들의 공동생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최근 광주시 동구 공도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광주교당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 교구장은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세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교구장은 “원불교에서는 행복의 세상을 낙원 세계라 칭하는데 ‘세계’라는 말처럼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며 “우리가 살아 가야 할 이 세계는 나와 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00주년을 맞는 법인성사(法認聖事)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법인성사는 원불교 창립 당시 아홉 명의 제자들이 소태산 대종사를 따라 기도를 올린 결과 나타난 백지혈인(白指血印) 증표를 기념하는 날이다. “법인의 의미는 거듭 태어나는 데 있어요. 이를 토대로 다른 이들을 향한 봉사, 배려 그리고 창생을 위한 제도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대각개교절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를 피력했다. 또한 이후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염원한다는 뜻도 전했다. 장 교구장은 “우리나라는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의 나라이다.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며 “극하면 변하듯 이제 서서히 통일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통일의 희망이 보여 기쁘고 이 기회를 잘 살려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구장은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도 물음이 있는 삶을 살 것을 주문했다.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가치와 보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이 허망하지 않으려면 돌아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바꾸고 고쳐가는 데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문학 만난 광주역사문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강좌

광주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찾는 시민교육강좌가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광주역사문화자원이 인문학을 만나 소통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오후 3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과 광주 일원에서 시민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광주의 역사문화 강의와 함께 SNS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일반 강좌와 답사로 이루어져 있다. 강좌 프로그램은 ▲25일 도시와 인문학의 만남(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27일 광주문화 100년(이동준 조선대 교수) ▲5월22일 5월과 사진 그리고 SNS(김향숙 사진다큐작가) ▲4월 도시의 기억찾기(박흥근 건축사) ▲9월 세상과 만나는 새로운 장, SNS(김꽃비 소통마케터) 등의 차례로 진행된다. 문의 010-6607-0917. /박성천기자 skypark@